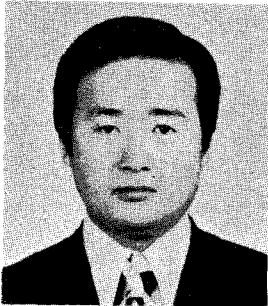


값싼쪽보다 고가상품인식으로



김 동 수

옥성씨비스상사 대표

우리가 험벗고 굶주릴 때 식사시간 전후에 인사말이 ‘진지 잡수셨습니까?’ ‘또는 ‘식사 하셨습니까?’ 등으로 인사의 첫머리가 먹었느냐? 굶었느냐를 가장 큰 관심거리로 여긴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까?’라는 식의 인사말이라야 인사지 ‘식사하셨습니까?’하는 식의 인사말은 지금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논리에 위반되어(?) 그러한 인사말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인사말이 못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즉 먹는데 있어서도 양보다는 질적문제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현실임에도 우리는 계란소비를 촉진함에 있어 계란은 「가장 우수한 식품이며 가장 저렴한 식품」으로 P.R하고 있다. 관련 단체와 생산자 단체에서는 이렇게 가장 우수하고 저렴한 계란이 왜 소비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하여 부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은 무엇인가?

소비자의 소비욕구가 그저 배만 채우는 시대는 지나 즉, 맛있게 먹으려 하고 있는데 반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2가지 장점만으로 소비자에게 계란을 공급하려는 것은 아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계란의 가공조리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계란은 주식(主食)의 일부분으로서 항상 옆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소비자가 갖고 있어야 하겠다. 한국 사람이 마치 ‘밥’을 먹으려면 ‘김치’가 있어야 하듯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2세들에게 계란은 식사에 있어 ‘바늘과 실’ 관계처럼 꼭 필요한 것이라고 장기간에 걸쳐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성인이 되어서도 계란을 항상 찾을 테니까...